

社說

트럼프 손에 달린 한국 자동차산업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태세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90일 이내에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안보를 해친다는 판단이 내려진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상무부 보고서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수출한 자동차 245만여대 가운데 81만1천여대(33%)가 미국으로 들어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 판매된 자동차 127만대 중 58만대를 한국에서 생산했다. 아직 고율 관세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맹 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 등이 반영될 수도 있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입김이 더 세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한미 FTA 개정 때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지만, 무역확장법에 따른 별도의 자동차 관세 면제될지는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전언에 따르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측 인사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상황에 따라 자동차가 아닌 다른 분야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갈자루를 쥐고 있고, 실제로 휘둘렀을 때 타격도 큰 만큼 통상당국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검토의 주요 목적이 유럽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도 나오지만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불명이 어디로 될지 모른다. 불행 중 다행으로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여부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기까지 90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김경 칼럼

북미 정상회담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



본사 회장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은 북미 적대관계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비핵화 조치가 있어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미국이나 북한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짜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레토릭'(수사)만으로는 여론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말이면 미국은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이 확실한 진전이 없으면 앞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내년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경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작년 1차 회담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북미간 접촉이 이뤄졌으나 양측 모두 손에 잡히는 성과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엔 물꼬를 트지 못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추동력도 잃어버릴 게 확실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원하는 바를 주고받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북미 두 정상 모두 일반적 지도자에게서는 쉽사리 찾기 힘든 예측불허의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있음은 세계가

인정한다. 따라서 두 정상이 담판장에 마주 앉았을 때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수준을 뛰어넘는 이번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는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1차 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해 '하노이 선언'에 답을 계획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전적으로 '하노이 선언'의 핵심은 두 정상의 입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에 나서는 규모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핵무기-핵분열 물질 및 영변의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완전한 핵폐기' 순서로 진행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회담에서 최소한 그 첫 단계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 상을 조차로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 선언이나 평화선언 등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

에 관해 (북측과) 얘기를 나눴다"고 밝혀 평화체제를 논의할 별도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정도만 현실화해도 한반도는 30년 가까운 북핵 협상 역사에서 한 번도 나아가지 못했던 미담의 영역으로 들어설 게 된다. 다만 북한이 제재 완화 없이는 결코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같은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미국도 최근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이다. 제재 완화 대상으로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비롯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현행 대북 제재와 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 경협사업들의 예외적 허용,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 제고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등이 1단계 조치로 구체적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담기고, 제재 완화는 그 이후 단계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제 양국이 서로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했을 게다. 결국 양국 정상회담의 결단만 남았다. 일주일 뒤 하노이 만남에서 두 정상의 통큰 결정을 기대해본다.

독자기고 주방화재 예방, 소화기 비치 의무 아닌 필수

날씨가 추워지고 실내는 건조해지는 탓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유독 집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그 중에 주방화재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택화재로 발생하는 원인 중 부주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방화재 안에서 주된 요인은 가스레인지이다. 가스레인지 사용하기 전에는 실내에 필요한 공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환기를 시켜주고, 사용 후에는 점화 코크와 밸브를 꼭 잠가야 한다. 또 가스레인지만 정리하는 것이 아닌 그

주변도 늘 깨끗하게 청소하여 기름이 튀어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식용유 화재이다. 집안에서 보통 식용유를 두른 냄비를 가열했을 경우 1분 40초 정도 지나면 온도가 250℃도 까지 치솟고, 3분 뒤면 300℃를 넘어가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한다. 5분이 지나면 냄비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이 불이 주변의 가전제품과 지류 등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 집안 전체로 번져나가게 된다. 일반 유류화재는 화염이 꺼지면 재발하지 않지만, 식용유 화재는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온도가 발화점(288-385

℃)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곧바로 재발할 수 있다. 즉, 식용유 온도는 낮추는 게 관건이다. 이럴 때 가장 빠른 화재진압은 K급 화재용으로 식용유화재 전용소화기이다. 불이 붙은 식용유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가연물을 낮추는 냉각소화와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역할을 하는 게 강화액 소화기인 K급 소화기이다. 생활의 지혜로서, 소화기의 대체재를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배춧잎이다. 배춧잎처럼 잎이 넓은 채소가 식용유의 표면을 덮어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식용유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 /이윤창 전남 보성소방서 소방사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산구청	국장대우	고훈석	010-9992-8212	강진	차장	전운재	010-6221-3346
광산	차장	고도경	010-3699-3804	해남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동구	국장대우	서기만	010-4602-0708	장성	부장	정윤식	010-3640-6323
남구	기자	이유빈	010-9632-5879	무안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북구	부장	김정관	010-9464-2555	영광	차장	김진	010-9221-0000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여수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순천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나주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광양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담양	국장대우	강종연	010-6297-7599	고흥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곡성	부국장대우	심섭식	010-3608-2634	함평	차장	박정오	010-5189-5639
구례	국장대우	심건식	010-4624-0005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보성	국장대우	김용욱	010-3602-8103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983
회선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진도	부장	한길준	010-8265-8848
장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